

경제기관장 지역경제 활성화 고심

2018년 제1차 민생경제원탁회의 열려

SOC·일자리 안정자금·지원시책 등 논의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제1차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18일에 기업의 건전한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균형성장을 위해 조직·운영되는 전주상공회의소(효자동 신사옥)에서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용노동부,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도내 경제 유관

기관장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자금·창업·기술·인력·판로 등 2018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도내 각 경제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자치분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희망2018 나눔캠페인 등을 안내하고 각 기관

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준장대교 등 45건의 도로사업, 111건의 하천사업과 국토관리사업 등 2018년(예산 1조 1,653억원)에 추진하는 지역 SOC사업에 대해,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지원 강화 추진방안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황 및 추진상황을 안내하며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였

다.

이번 민생경제원탁회의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과 올해 1월에 새로 취임한 기관장들이 다수 참석하여 상호간의 견고한 소통의 장이 형성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기운이 생겨난 지난해를 디딤돌 삼아 2018년에는 '반구십리'의 자세로 전북도는 물론이고 도내 모든 경제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전북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하루종일 나쁨·매우나쁨

외출자제·마스크 등 권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18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와 김제, 완주, 남원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추가 발령했다.

앞서 군산과 익산, 부안, 정읍, 고창 지역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또 이들 지역 이외 도내 다른 지역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추가 주의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날부터 이어진 대기정체에 새벽부터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져 전북지역은 하루 종일 나쁨 또는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정읍 방사선기기산업 거점 박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융합기술산업 벨리 조성

한국방사선진흥협회(회장 송명재)가 정읍을 방사선기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와 관련 산업 단지가 조성돼 있는 신정동 일대 기반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일대를 방사선 융합기술산업 특화 벨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4월부터 가동 중인 의료방사선정도관리센터(이하 정도관리센터)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방사선기기 공인시험센터(이하 시험센터)가 있다.

정도관리센터는 2014년부터 3년여에 걸쳐 추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사선 연구 기반

확충 사업 일환으로 구축됐다. 암 치료와 질병 진단 시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방사선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보급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두 총 76억원(시비 18억 지원)이 투입됐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이다. 1층에는 방사능 정밀 측정이 가능한 장비 3종, 지하 1층에는 방사선기기 정밀 교정에 필요한 방사선 기준 조사 시스템 4종이 구축돼 있다.

올해도 1층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방사선 치료 기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의 정확도와 정밀도 관리를 위한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사선 측정 분야 전문교육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새농민회 쌀 전달식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홍재 전북새농민회장 및 회원들이 이종성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소외계층을 위한 쌀 200포대 기증하자 송하진 도지사가 격려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신장이식 500례 달성

충청·호남지역 최고 이식의료기관 자리매김

전북대학교병원은 신장이식 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전북대병원장기이식센터는 지난 16일 말기 신장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김모씨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총 500례 기록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체이식외과 유화철 교수 집도로 이뤄진 이번 수술은 남편에게 아내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로 4시간여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환자는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이다.

전북대병원은 1989년 60대 어머니의 신장을 30대 남편에게 이식한 첫

번째 수술 성공 이후 매년 수십 건의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체 이식 219례, 뇌사자 이식 281례 등 총 500례를 시행했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전북도내 최초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을 성공했으며 현재까지 16건의 혈액형 불일치 신장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전북대병원은 신장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간이식 수술에서도 뛰어난 의술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88년 뇌사자간이식의 성공에 이어 2005년 생체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

는 등 현재까지 96례 간이식 수술에 성공해 충청·호남지역 최고 이식의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유희철 교수는 "이번 500례를 달성하기까지 어려운 여건을 딛고 한평생의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말기 신장 질환과 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이 새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뽑는 2018년도 내수면자원조성 공모사업에 도내 양식단지 1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지원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개소 공모를 신청, 해양수산부의 서면평가(1월15일)를 거쳐 남원시 양식단지 1개소가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내 4만2,700㎡ 규모로 추진될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70억원(국비 35, 지방비 35)을 투자하여 친환경 양식시설, 판매,물류,유통,체험시설, 저류시설, 환경기초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 주차장 등 생산·물류·체험·관광이 함께 하는 내수면 양식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며, 용수확보 및 양식시설 참여자 유치

전략 우선 검토 조건하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반영된다.

올해는 5억을 지원하여 세부 계획 수립과 설계를 거쳐 3년간 추진, 2차년도에는 기반시설 공사, 3차년도에는 시설 투자공사 진행으로 남원산 미꾸리의 대량생산 기반을 토대로 '남원 추어탕'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양식 기반부지를 조성해 입주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임대하고 입주자는 자부담으로 양식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